

종합·국제

미 대선 D-9

오바마 지지를 격차 7.9% 굳히기

‘공화 표밭’ 버지니아 등서도 매케인에 우위

미국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최근 일주일 동안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지지를 격차를 점점 더 벌이며 승기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치전문매체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닷컴에 따르면 오바마는 라스베이저, 퓨리서치, 갤럽, AP, 로이터, 조그비 등 16개 기관에서 지난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매케인보다 지지를 평균 7.9% 포인트나 높게 나타냈다.

이들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나온 지지를 격차는 퓨리서치가 14%포인트로 가장 컸고 AP가 1%포인트로 가장 작았다.

오바마는 특히 대선에서 당락을 좌우해온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등과 같은 격전 지역 주들에서 앞서나가기 시작했고 특히 전통적인 공화 표밭인 버지니아와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도 매케인에 우위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라스베이저와 조그비, C-SPAN, 로이터의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오바마가 매케인을 8%포인트와 9%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선거전문가들은 대선을 불과 10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매케인이 이런 격차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동북아 포럼 참석

DJ, 中 선양 도착

오늘 개막식 기조연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7~29일 개최되는 동북아발전포럼 참석을 위해 26일 오전 중국 선양에 도착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현지시간) 대한항공 KE 831편으로 선양 타오 국제공항에 도착, 박성웅 주선양 한국총영사를 비롯하여 라오닝성과 선양시 정부 관계자 등의 영접을 받았다.

김 전 대통령은 27일 오전 라오닝우의빈관에서 다이빙구 국무위원을 면담하고 곧바로 포럼 개막식에 참석,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한중관계 발전, 중국 동북 3성과 동북아 국가의 협력,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체제 전망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8일에는 북한 신의주의 점령도시인 단둥시를 방문, 시정부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오후에는 압록강변을 둘러본 뒤 29일 오전 출국한다.

김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04년 중국인민외교학회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뒤 4년 만이며, 동북지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예멘 흉수 48명 사망 25일(현지 시간) 예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흉수가 발생, 최소한 48명이 사망하고 2만2천명 이상이 대피했다. 흉수로 다리가 무너지면서 여행객들이 오도기도 못한 채 고립돼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기 실물경제 확산 막아야”

원자바오 中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25일 “세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이날 베이징에서 제7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폐막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는 아직도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시아와 유럽 43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통화와 금융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약속하며 다음달 15일 열리는 금융정상회의를 앞두고 해법 제시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와 관련,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다음달 열리는 금융정

상회의는 단순히 만나서 토론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뭔가 결정을 내리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재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이고 중요한 결정에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며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원 총리도 “다음달 15일 워싱턴에서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열리는 금융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정당하며 효율적인 국제금융시스템을 수립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경제에 보다 잘 기여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본 유학시험 한국어로도 출제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학력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일본 유학시험’의 문제를 종전의 일본어, 영어 이외에 한국어와 중국어도 출제키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에 26일 보도했다.

이는 방침은 일본 유학시험의 수험자 가운데 90% 가까이 한국과 중국인이 차지하는 만큼 지원자의 실제 학력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현재 일본 유학시험은 일본어와 영어로만 출제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시험에서는 총 수험자 1만9천206명 가운데 중국인 74%, 한국인 14% 등 한중 양국 수험생이 88%에 달했다. /연합뉴스

“분담금 제공 방식 현금서 현물로”

한-미 29~30일 서울서 4차 방위비분담 협상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 제8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고위급협의를 29~30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한-미는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바꾸는 방안과 한국의 분담금 증액비율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제7차 방위비협정의 시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양국은 연내에 새 협정에 합의해야 한다.

외교 당국자는 26일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서로

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이번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차례의 협의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현재 분담비율을 다른 동맹국과 비슷한 ‘공평한 수준’(50%까지)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내년의 경우 분담금 증액비율을 최소 6.6%에서 지난 1999~2004년의 평균 분담금 증액률인 14.5%까지 올려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우리의 부담 능력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분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며 내년의 경우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률

인 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당국자는 “증액 비율보다는 분담금 제공방식을 확보하는 부분에 더 큰 신경을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방위비 분담금 지원방식을 지금의 현금에서 현물로 변경하기로 원칙적인 공감을 이룬 바 있어 협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지난 해 한국은 전체 국방예산의 2.94%인 7천255억 원 상당을 제공, 전체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42% 정도를 부담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비고. Contains multiple rows of real estate auction notices.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비고. Contains multiple rows of real estate auction notices.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비고. Contains multiple rows of real estate auction notices.

2008. 10.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사 이영남 사법보좌관 이미숙